

관상적 영성(Contemplative Spirituality)

살렘 선임 연구원들의 논문

한 세대 전만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영성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영성에 관해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면서 용어 자체에 혼란이 생겼다. 사람들이 영성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영성을 일차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 성찰(theological reflection)로,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존재들(spirits)과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연관하여 생각한다. 많은 이들은 영성이라는 단어에서 기도와 명상 그리고 다른 영적인 훈련을 연상한다. 그리고 영성은 자주 치유와 심리학적 성숙과 연관하여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영적 순례자들이 전통적으로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수세기에 걸친 그들의 가르침과 저술들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이어지는 논의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모아진 지혜이다.

영성이란 무엇인가?(What is Spirituality?)

많은 전통들에서 "영"(spirit)이란 단어는 존재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되는 생명의 힘(life-force)을 가리킨다. 영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생명의 호흡이다. 히브리어 루아흐(ruah)와 헬라어

프뉴마(pneuma), 라틴어 스피리투스(spiritus),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나(prajna)는 모두 "호흡"(breath)과 "영"(spirit)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생명의 힘은 우리의 사랑, 즉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를 세계와 서로에게 연결시키는 열정들과 영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성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추진력이 되는 우리 안의 가장 심오한 사랑들, 열정들, 관심들과 관련이 있다. 영성은 내적 의미와 삶에 대한 의지의 원천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열망들, 가치들, 꿈들의 공급원이다. 따라서 영성은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들, 관계들, 일,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에 연료를 공급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다.

대중적인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영성은 특별하거나 색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성은 절대적으로 일상적이며 완벽하게 자연스런 것이다. 모두가 영적인 삶을 영위한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서뿐 아니라 일터, 지역 사회와 가정에서도, 모든 우리의 창조성과 헌신들 가운데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영적인 삶은 심해의 해류와 같아서 종종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흐르며, 성취와 유대감(connectedness)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진리와 선함,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윌리엄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가 표현한 대로, 그것은 "모든 것들을 뚫고 흐르는"(rolls through all things), "깊숙이 스며들어있는"(deeply interfused) 어떤 것이다.

영성은 세계의 모든 위대한 종교들의 살아있는 핵심이며, 신앙의 전통들은 각각 자신들의 방식으로 영성의 본질이 사랑임을 선포한다. 그 기독교적인 표현은 온전한 자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두 계명 안에 드러난다. 따라서 영성은 이

계명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행 17:27)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던 그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성은 사랑과 동의어로 간주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랑이란 사랑의 느낌이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선행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속성들이나 설명들이 부여되기 이전에 사랑의 에너지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가 성취를 모색해 나감에 따라, 근본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영성의 힘은 여러 방식으로, 즉 때로는 단순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왜곡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 자신을 표현한다.

경로와 단계(paths and phases)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성, 자신들의 근본적인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동양과 서양 모두의 고대 사상에 따르면 영성은 앎(knowing)과 행함(acting), 느낌(feeling)의 세 가지 주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기독교 철학은 이 세 가지 방식들을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진리(Truth)이고, 선함(Goodness)이며, 아름다움(Beauty)이시고, 이러한 신적 특성들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the way of the True)로, 선함의 길(the way of the Good)로, 아름다움의 길(the way of the Beautiful)로 이끈다. 각각의 길들은 각 사람의 안에서 어느 정도는 모두 표현되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한 사람은 그 가운데 한 가지 길이 다른 두 가지 길들보다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각각의 길들은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리의 길은 이해를 통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추구한다.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이 특성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친밀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분명히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그들은 신학과 철학,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생각하게

만드는 설교들을 즐기며,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분별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 경로는 자주 지적인 이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직관적인 통찰과 영감으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도 또한 열려있다.

선함의 길은 행동을 통해,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 또한 섬김을 추구하고 정의를 촉진시키는 것을 통해 사랑을 표현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이 특성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환자를 방문하며, 평화 운동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그들은 비록 가치관의 폭넓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도덕성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그들은 선교팀들과 다른 자원봉사활동들에 매력을 느낀다. 그들은 성경에서 도덕적인 지침들과 행함에 대한 촉구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아름다움의 길은 느낌들과 헌신(devotion)의 형식을 통해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시 42:1). 이 방식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의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차원들에 특별히 반응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열정, 공감 그리고 친밀함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직접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는데 관심이 있고, 찬양과 감사, 경배에 이끌린다. 그들은 특별히 예배의 미학적이고 영감을 주는 측면들과 성경의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 닿는 본문들을 음미한다.

이 세가지 경로들은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 성장해 감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결합되어 가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 경로에 더욱 더 이끌리기도 하고 더욱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들은 인생의 경험이 깊어짐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12 세기 수도사였던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버나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Love of Self for One’s Own Sake)에서 출발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버나드는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에 충분할 만큼 인생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깨달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버나드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Love of God for One’s Own Sake)이라 부른 두 번째 단계로 이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인생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신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영적 생활의 시작이 된다. 버나드는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응답된다고 말한다.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받는 선물들(은사들)로부터 그 선물들(은사들)을 주시는 분으로 전환된다고 버나드는 말한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Love of God for God’s Sake)이다. 최종적으로 버나드의 개념에 있어서 이 사랑은 하나의 새롭고 심오한 깨달음을 낳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감동과 흘러넘치는 사랑에 대한 깊은 느낌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버나드의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Love of One’s Self for God’s Sake)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새로운 아름다움과 가치를 드러내는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버나드가 묘사한 대로 영적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세 가지 고전적인 경로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도 없다. 만약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한 “하나의 올바른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하나의 모델을 창조함으로써 처방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모델들은 영적인 삶의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다양한 경험들과 태도들 모두가 진정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록 대부분의 영적인 모델들이 단계적인 발전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다. “초보자들”이 종종 후기 단계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종종 초기 단계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는 말한다. “기도에 있어서 종종 초보 단계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관상(Contemplation)

영적인 삶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가장 심오하고도 순수한 경험은 아마도 전통들이 관상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적인 단어의 용법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관상한다는 것은 그것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고전적인 영성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관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고전적으로, 관상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종류의 경험이다. 이것은 사랑스런 임재(presence)에 대한 순수한 경험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이다.

라틴어 어원 *cum*("with")과 *templum*("temple" 성전)은 그 경험이 갖는 거룩한 속성을 내포한다. 그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관상은 항상 은사이고, 어떠한 방법이나 연습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영적 생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연습들과 훈련들(practices and disciplines)을 포함하고 있는 묵상(meditation)이라는 개념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간략하게 말해서 우리는 묵상을 할 수는 있지만 관상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은사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상의 간단한 정의는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스런 임재"(loving presence to what is)이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행 17:28), 존재하는 그대로의 사물들에 임재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엡 1:23)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기독교적인 관상은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만물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세기 카르멜회(carmelite)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는 그것을 가리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랑스런 바라봄"(the loving gaze that finds God everywhere)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관상"이라는 단어를 아주 특별하게 심오한 기도의 특성들을 묘사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그것을 침묵(silence)과 정적(stillness)과 연관시키고,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기조차 한다. 하지만 고전적으로 관상은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해 사랑스럽게 반응하는, 세상 가운데 직접적으로 열려있는 임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상은 고요하거나 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아주 능동적이고 시끄러운 것이 되어도 좋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상은 임재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특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내적 경험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상황과 필요들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관상과 행동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행동가운데 모든 것을 지탱하고

포괄하는 관상이 존재함을 이해하는 것(contemplation in action)이 더욱 정확한 개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은 깊은 기도의 열림(prayerful openness)과 사랑의 반응(loving responsiveness) 가운데 함께 결합할 수 있다.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관상이거나 적어도 관상적 태도(contemplative attitude)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경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관상의 특성은 각각의 경로들로 하여금 실제 상황들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지식의 길은 추상적인 개념 가운데 길을 잃을 수 있고, 행동의 길은 맹목적인 선교 열정이나 탈진에 굴복하게 될 수 있으며, 느낌의 길은 자기도취적인 감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관상은 당면한 현실(the here and now)에 직접적으로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래를 위한 계획들과 과거의 기억들이 관상 가운데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나 당면한 현실적인 필요들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지는 못한다. 계획들과 기억들은 생각들이나 느낌들, 감각적 인식들과 같이 단순히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의 부분들일 뿐이다.

관상 가운데 자각(awareness)은 한가지에만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배제하게 되지 않는 상태로 열려있게 된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주의를 집중하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관상의 경험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보다 폭넓게 자신을 열어 놓을 때, 더욱 더 사랑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우리의 자신의 갈망에 보다 더 다가갈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상을 위한 많은 연습들은 주의를 집중하는 우리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unlearning)과 연관이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이끄심, 초청에 자신을 열어 놓고자 하는 단순한 자발성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한다. 바로 이것이 관상적인 태도이다.

관상적인 삶(Contemplative Living)

관상은 우리에게 가끔씩 주어지는 경험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관상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나머지 영역 속에서 관상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관상적인 삶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태도는 관상의 순간적인 경험이 주는 무한한 지혜를 삶 전체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관상적인 삶은 우리 삶의 심연에 흐르는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God’s business)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수반한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들과 결정들의 과정을 기꺼이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관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신비로움을 존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신뢰(Trust)

관상적인 삶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에 대한 깊고 급진적인 신뢰이다. 신학적으로, 신뢰는 다음의 가정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1. 영적인 삶은 철저하게 사랑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을 그들의 중심에 가지고 있다. 이 갈망은 권력이나 폭력에 대한 무절제한

집착의 경우처럼 심각하게 왜곡될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행 17:26-27)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모든 세대의 관상가들은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의 유명한 기도를 함께 반복해 왔다.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안식하기까지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2.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참으로 임재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시 139).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행 17:28, 표준새번역)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 안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안에 우리 호흡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러므로 관상적인 삶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순례라기 보다는 언제나 존재해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됨에 대한 점진적인 깨달음의 과정이다.

3.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정적이지도, 활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함과 진리, 아름다움, 평화, 정의를 추구하며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흐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간 순간 이 움직임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꺼이 갈망하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삶이라는 춤판으로 이끄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이러한 함께 참여함(co-participation)은 결코 끝나지 않는 초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시는 시간과 경우는 결코 없다.

4.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와 움직임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상적인 삶의 많은 부분은 신비로 둘러 싸여있다. 비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대체로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시는지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신적인 신비(Divine Mystery)를 존중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조화를 이루기를 기도한다.

관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신뢰는 참으로 급진적인 것이다. 여러 면에서 관상적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화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우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들어왔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고 배운다. 우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의 분명한 이유와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 가운데 어떤 것도 관상적인 삶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필요한 모든 도움을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 때 우리는 “스스로 돕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분명한 목표들과 전략들조차 자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논리적인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이 이 실용주의적인 세상에 있어서 관상적인 삶을 대단한 도전으로 만든다. 이것은 자기 결정과 자율 규제라는 주류의 문화적 가치와 우리 자신의 습관에 반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관상적인 삶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 관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종종 받아들여질 수 없을 만큼 수동적이며, 심지어 무책임한 소리로 들린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혹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요.” 바로 이런 말들이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조차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주 명확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그러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을 뿐이다.

지원(Support)

문화적 규범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관상적인 삶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와 묵상, 영성 일지 쓰기, 예배와 주일의 준수 같은 영적인 연습들과 훈련들의 지원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영성 지도(spiritual direction)로부터 지속적인 관상기도 그룹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영적인 공동체는 우리를 격려하고 영적 분별의 과정에서 우리를 돕는다. 지원은 많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영적 독서, 퇴수회(수양회, 피정 retreat)와 혼자만의 시간, 몸과 움직임에 대한 집중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탱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기독교적 관상에 대한 접근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도권과 행하심에 대한 강조로서 마무리된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과 스스로 성취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나 이웃, 우리가 사는 세계 혹은 우리 자신을 궁극적으로 사랑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받아야 하며,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는 선한 행실들로 인도되어야 하며, 우리 내면과 주위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가 주어져야만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춤을 이끄시도록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보다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관상적인 삶에 대한 계속되는 소망이다.

Carole Crumley

Bill Dietrich

Ann Kline

Gerald May

2004 년 3 월